

## '신파·죽음·민폐' 쪽 뺏더니 인기 쑥 ↑

비장함 속 뿔 터지는 웃음 신선  
20대가 겪는 현실 그리며 공감  
이상근 감독 경험 투영 입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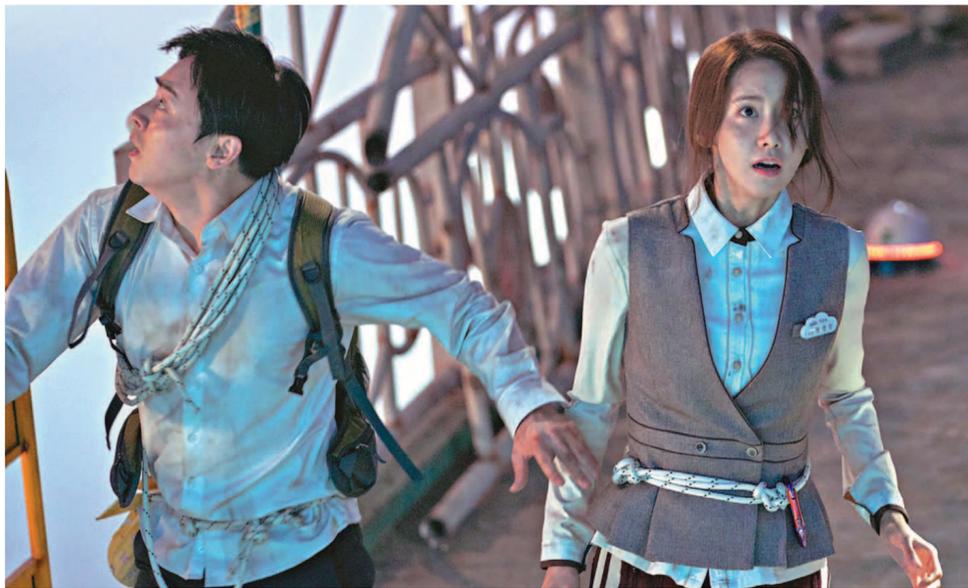
조정석·임윤아 주연 영화 '엑시트'가 여름 시즌 첫 흥행작에 등극했다. 7월 31일 개봉해 첫 주말이 지난 5일 오전 누적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제작진이 택한 '3無(무)·3有(유)' 전략의 성과로 보인다. '엑시트'(제작 외유내강)에 없는 세 가지, 동시에 '엑시트'에 있는 세 가지를 통해 차별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확산되는 입소문, 때마침 맞물린 휴가철,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까지 더해져 빠르게 관객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 ● '3無'...신파·죽음·민폐

'엑시트'는 어머니 칠순잔치에서 오랜 만에 모인 가족의 목숨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기지와 용기로 극복하는 이들의 이야기다. 가족이 나오는 재난영화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코드는 역시 눈물을 쥐어짜는 '신파'의 설정. 하지만 '엑시트'에선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 누군가의 '죽음'도 없다. 죽음으로 희생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방식은 재난영화의 단골 설정이지만 '엑시트'는 다른 길을 걷는다. 죽음 대신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인간애에 주목한다.

연출자 이상근 감독은 "재난상황 자체보다 인물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생존 방식에 포커스를 맞춘 방식이 다른 재난



눈물 쥐어짜는 '신파', 희생 강요하는 '죽음', 상황 꼬이게 만드는 '민폐 캐릭터' 없이 흥행하고 있는 영화 '엑시트'.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영화와 차별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갈등과 긴장 유발을 위해 재난영화가 손쉽게 쓰는 '민폐' 캐릭터도 없다. 각자 위치에서 능력껏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의 연대가 있을 뿐이다. 조정석과 임윤아의 극중 이름인 '용남', '정 의주'에서도 이런 지향이 엿보인다. 관객은 '용기 있는 남자', '정의로운 주인공'을 축약한 이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 '3有'...코미디·현실·패기

'엑시트'는 유독가스로 인해 벌어지는 재난상황을 그린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재난"을 위한 설정이다. 기존 재난영화와 스펙터클한 비주얼에 공을 들인 반면 '엑시트'는 처절한 생존기를 '코미디'로 버무린다. 비장함 가운데 터지는 웃음이 최대 강점이다.

백수 취급받는 취준생(취업준비생), 직장상사의 갑질로 스트레스 받는 주인공들의 처지는 현재 20대 등 청년세대가 겪는 '현실'을 반영한 듯한 인상을 준다. "지진과 쓰나미만 재난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이 재난이야!"라는 극중 대사도 이를 상징한다.

꿈을 향한 청춘의 '짠내' 나는 분투를

재난영화에 녹인 설정은 이상근 감독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됐다. 올해 41세인 감독은 2004년 첫 단편영화를 내놓은 뒤 상업영화 연출부 등을 거친 끝에 15년 만에 데뷔했다. 오랜 기간 취준생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도 영화를 포기하지 않은 신인감독의 '패기'가 '엑시트'를 탄생시켰다.

감독은 "대부분 창작자가 주인공에 자신을 투영하고 녹여낸다"며 "감독이 되기까지 힘들었던 일들을 에피소드 삼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 가짜뉴스에 속았는 연예인

장나라·김남길 결혼뉴스에 곤혹  
처벌 수위도 송방망이 수준 지적

"이유도 근거도 없이 조롱당한 기분." 가수 겸 연기자 장나라가 5일 SNS에 올린 글이다. 이날 연기자 김남길과 7년 열애 끝에 11월 결혼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로 곤혹스런 상황을 처한 뒤였다. 그는 참담하다며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김남길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도 "결혼설은 근거 없는 악의적인 캠페인 조작으로 판명됐다"며 "최초 유포자를 찾아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각종 루머가 마치 사실처럼 인식돼 퍼지면서 심적 고통을 겪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다. 연기자 송혜교와 그룹 트와이스 미나 등도 지난달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관련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연예계의 고심은 더욱 깊어진다.

이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송방망이 수준에 불과해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여기서 나온다. 현재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존한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극소수이며, 최초 유포자만 처벌되는 상황이다. 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아예 포기하는 연예인도 많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작년 이후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20여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한 관계자는 "기획사가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NO 재팬' 캠페인으로 달라진 연예계 풍토 2면

### 일본드라마 리메이크 위축...미국·중국·대만 뜬다

반일 확산된 시청자 정서 고려  
제작진들, 대체시장 모색 나서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뒤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노 재팬' 캠페인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드라마 리메이크에 주력해온 국내 드라마 제작진이 대체시장 모색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국내 드라마 제작업계는 일본드라마를 위주로 리메이크 시장을 형성해왔다. 최근 2년 동안만도 일본드라마 리메이크작은 적지 않다. '더 뱅커' '최고

의 이혼' '절대그이'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리갈하이' 등과 현재 방송 중인 SBS '의사 요한', 채널A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 등이 있다. 여기에 '피피티-운명을 바꾸는 10개월', '모래탑-너무 잘 아는 이웃', '일음의 세계' '공중그네' '러브레터' 등이 리메이크될 예정이다.

하지만 향후 한동안 일본드라마 리메이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반일감정과 이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노 재팬' 캠페인이 배경이 되고 있다. 제작진으로서의 잠재적 시청자이기도 한 대중의 최근 정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작사들은 '60일, 지정생존자' 등 최근 들어 활발하게 리메이크의 원작으로 삼고 있는 미국드라마를 포함해 중국, 대만 작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영화 '꺼져버려 종양군', 미국드라마 '홀랜드', 대만드라마 '아가능불회애니' 등이 리메이크를 예정하고 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5일 "일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국내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를 내세운 해외 드라마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한일간 갈등이 당분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이 시국에...항일영화에 출연한 일본배우들 주목

기타무라 등 3인 '봉오동 전투' 열연

확산하는 반일감정 속에서 오히려 일본제국주의를 비판하는 항일영화에 출연한 일본배우들이 눈길을 모은다. 7일 개봉하는 영화 '봉오동 전투'(제작 빅스톤픽처스)의 기타무라 가즈키, 이케우치 히로유키, 다이고 고타로다.

영화는 1920년 중국 지린성 봉오동에서 벌어진 독립군과 일본군의 전투를 그린 이야기. 유해진과 류준열이 독립군 역으로 한 축을 이루는 영화 속에서 이들을 쫓는 일본군 역을 맡았다. 일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이들은 일본군 대장과 장교, 소년병 역을 맡아 제국주의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침략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내는 인물로 활약한다.



'봉오동 전투' 기타무라 가즈키. 사진제공 | IMBC

원신연 감독은 "실화 역사극의 리얼리티를 위해 일본인 역할은 일본배우가 맡길 원했고 그 자체로도 의미를 지닌다"며 "조심스럽게 타진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일본배우가 출연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 사생활 논란 휩싸인 강타

### 뮤지컬 '헤드윅' 하차 논의 H.O.T. 콘서트는 예정대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그룹 H.O.T. 멤버 겸 가수 강타(안철현·40)의 향후 활동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과거 연애사로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그가 뮤지컬과 H.O.T. 콘서트 무대에 오르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강타는 4일 2년 9개월 만의 신곡 발표를 취소한 바 있다.

강타는 당초 16일부터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시작하는 뮤지컬 '헤드윅'에 주인공인 트랜스젠더 로커 헤드 역으로 출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강타의 팬들을 비롯해 '헤드윅'의 고정 팬들까지 하차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제작사 쇼노트 측은 5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이날 오후까지 강타의 하차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쇼노트 측은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는 17일 강타 출연분의 입장권이 이미 팔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주연으로서 많은 등장 분량 탓에 체력 소모가 커 대체 배우를 찾기도 어렵다. 헤드윅 역을 강타와 오만석, 정문성, 전동석, 윤소호 등이 돌아가며 한 회씩 공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제작사 측은 조만간 강타의 하차 여부를 결정기로 했다.

이와 달리 9월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릴 예정인 그룹 H.O.T.의 콘서트 '2019 High-five Of Teenagers'는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멤버 전원이 그룹 해체 17년 만에 진행되는 무대인만큼 강타의 의지만으로 하차하기 힘든 상황이다. 멤버들의 한 측근은 "이미 3회 공연 티켓이 매진됐다. (콘서트는)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 이번이 없는 한 계획대로 출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지드래곤, 군 복무 중 영리행위 논란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이 10월 제대를 앞두고 대만에서 연 전시회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드래곤은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전시회 '언타이틀드2017(Untitled 2017)'를 열었다. 7명의 그림을 선보이며 일부 작품은 관람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복무 중 영리행위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드래곤이 임대 전 그림 작품을 인쇄해 상품화했다"면서 영리행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육군 현역 입대한 지드래곤은 10월26일 제대한다.

## 검찰, '프듀X' 조작 의혹 수사 착수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시청자로 구성된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가 프로그램 제작진 등을 사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7월19일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투표수에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제작사 CJ E&M은 "방송으로 발표된 개별 최종 득표수를 집계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